



보도자료

2020. 6. 5.(금) 배포

힘내라
대구경북

힘내라
대한민국

2020년 이공학 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

- ◆ 이공 대학중점연구소 31개소, 핵심연구지원센터 13개소 신규 선정으로 대학 내 특성화·전문화된 연구 구심점 구축
- ◆ 창의적 연구에 도전하는 박사급 연구자 1,587명, 지역대학 연구자와 국가 차원의 보호·육성이 필요한 학문분야 연구자 578명 지원

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, 한국연구재단(이사장 노정혜),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(원장 신형식)은 2020년 6월 8일(월), 교육부 이공학 학술연구지원 7개 사업의 신규과제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.

- 교육부 이공학 학술연구지원사업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핵심이 되는 대학의 학술·연구역량 강화를 목표로, 학문후속세대 양성, 대학 연구기반 구축, 학문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있다.
- 올해는 신진 박사급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, 연구역량과 운영 기반을 갖춘 대학 연구소를 대학 내 연구 구심점으로 육성하는 한편,
 - 상대적으로 연구 여건이 열악한 지역대학과 보호·소외분야 연구자를 중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.

※ (선정규모) 박사급 연구자: 2019년 1,034명 → 2020년 1,587명 / 대학중점연구소: 2019년 22개 → 2020년 31개 / 핵심연구지원센터: 2019년 20개 → 2020년 13개 / 지역대학 우수연구자: 2019년 374명 → 2020년 500명

《 교육부 이공학 학술연구지원사업 구조 》

<div style="background-color: #90ee90; padding: 2px; text-align: center; font-weight: bold; font-size: small;">학문 후속세대 양성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·박사후연구원 국내외 연수 ·대통령 Post-Doc. 펠로우십 	<div style="background-color: #000080; color: white; padding: 2px; text-align: center; font-weight: bold; font-size: small;">대학 연구기반 구축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대학중점연구소 발굴·육성 ·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	<div style="background-color: #add8e6; padding: 2px; text-align: center; font-weight: bold; font-size: small;">학문 균형발전 지원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창의·도전 연구기반 지원 ·보호연구 ·지역대학 우수과학자
---	--	--

《 박사급 핵심 연구인력에 대한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 》

□ 연구력이 가장 왕성한 시기의 신진 연구자가 독립적 연구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박사과정생부터 박사학위 취득자, 신진 연구인력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,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백 없이 지원해 기초연구 저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.

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	박사후 국내외 연수	창의·도전연구	신진연구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박사과정생	주니어포닥	시니어포닥	신진 전임교원
2천만 원/연	4천5백만 원/연	5천만 원/연	150백만원/연
'20년 337개	'20년 535개	'20년 1,100개	'20년 880개

* 박사후 국내연수(2020년 350개)는 6.5.(금)부터 접수 시작이며, 7월 중 선정 예정

- 연구과제는 자유 공모 방식으로, 학문분야별 전문가 평가를 통해 연구자 역량과 연구주제의 창의성·도전성이 높은 과제를 선정하였으며,
 - 특히 비전임 연구자를 지원하는 창의·도전연구는 2020년에 과제를 1,100개로 확대(2019년 대비 39.1% ↑)하여 안정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.

《 대학 연구 거점 구축 및 연구 인프라 강화 》

- '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'은 교육부가 1980년부터 우수한 이공분야 대학부설연구소를 선정하여 대학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에 기여하도록 지원하는 대표적 학술지원사업이다.
 - 연구소 운영 실적·계획, 연구인력의 우수성 및 후속세대 양성계획, 대학의 중장기 투자 계획 등에 대한 서면·발표 평가를 통해 신청한 98개 연구소 중 최종 31개 연구소를 선정하였으며, 이들 연구소에 연구소당 최대 9년(3+3+3년)간 연 평균 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.
 - 올해는 특히 '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지역혁신센터(경희대)', '자율지능 무인비행체 연구소(세종대)', '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(충북대)' 등 인공지능(AI)·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다양한 주제의 연구소가 선정되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역량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된다.

- 이번 신규 선정을 통해 이공 분야 **대학중점연구소는 총 114개로 확대**되며, 약 **600여 명의 신진 박사급 연구 인력**이 전임 일자리를 찾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.
- ‘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 사업’은 대학 내 **산재된 연구 장비를 학문 분야별로 모아 공동 활용하도록 핵심연구지원센터를** 조성하고, 경력이 많은 **장비전담인력(테크니션)의 전문적인 관리·연구 지원**을 통해 대학의 연구여건을 개선하고자 지난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.
- 올해 52개 센터의 신청을 받아 시설장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의 서면·발표·현장평가를 거쳐 ‘바이오나노융합소재 핵심연구지원센터(가천대)’ 등 **13개 센터를 선정**하였고, **최대 6년(3+3년)간 연구 장비 유지·보수비, 전담운영인력 인건비 등 연 3억~6억 원**을 지원한다.
- 지난해 선정된 20개 센터가 1차 년도 사업 기간(2019.6.~2020.2.) 동안 **88명의 장비전담인력 고용, 14,386건의 장비 공동 활용, 공동 연구를 통한 논문 63건, 특히 18건의 실적을 내는 등 우수한 성과를** 창출하고 있어, 앞으로 대학 내 **신규 직위(테크니션) 안착**과 대학 내 기초연구 기반을 탄탄히 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.

《 기초연구의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 지원 》

- 수월성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보완하고자 **국가 차원의 보호·육성이 필요한 학문 분야와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대학 연구자**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학문의 균형적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.

- 보호연구는 올해부터 연구분야 지정이 아닌 **연구자가 보호분야와 필요성을 스스로 제시하는 방식**을 도입하여 해양극지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접수되었고, ‘한글필적 감정 연구’, ‘암흑우주와 대안 중력이론 검증연구’ 등 **78개 과제**를 선정하여 **최소 3년 이상** 지원함으로써 연구에 안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- 지역대학의 교육·연구를 활성화하고자 **올해 500명의 지역대학 우수연구자를 선정**하였으며, 연구비 5천만 원 외에도 박사후 연구원 채용 시 인건비를 5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여 지역 대학의 연구 저변 확대와 지역사회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.
-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“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대비해 대학은 교육의 혁신과 더불어 **교육·연구의 연계**를 통해 **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력**을 양성하는 기초 연구개발의 **구심점**이 되어야 할 것이다.”라고 강조하며,
- 교육부가 대학 기초 연구저변 확대와 연구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.
- ※ 선정 결과는 한국연구재단 누리집(www.nrf.re.kr) 및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누리집(www.nfec.go.kr)에서도 확인 가능

